

조계종 대국민 인식 ‘낙제 수준’

고산재단, 대국민 여론조사... 불교 위기 담론 확인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불교와 가톨릭이 근소한 차이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종교에 대해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 유발 측면이 짙다고 봤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미지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사회적 의식과 가치관 △종교 및 종교인식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 △조계종에 대한 인식 등으로 문항이 구성됐으며 (주)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중 주목할만한 것은 조계종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라고 하지만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산문화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계종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33.1%가 ‘잘 안다’고 답했

으며, 61.8%가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신뢰도의 경우에는 신뢰보다 불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의 14.8%만이 조계종을 ‘신뢰한다’고 했으며, 19.8%가 ‘불신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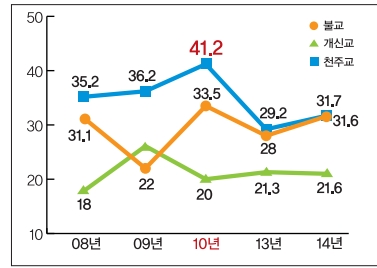
조계종에 대한 인상(이미지)평가는 낙제 수준이었다.

조계종의 △한국사회 발전 △문화화재 보존 △민족문화 창달 △국교보조금 투명 집행 △문화재관람료 투명 관리 △자연공원 보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주화 등의 기여도와 여부를 5점 척도로 묻는 9개 질문에 평균이 2.91점에 그쳤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58.3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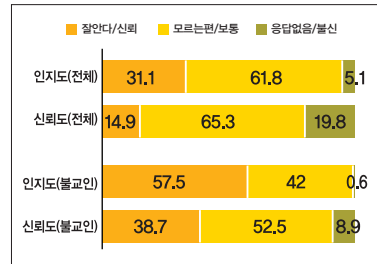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 70.3%들이 수행력과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총무원장의 신뢰도와 내부 자정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면 신뢰할 만 하다’는 의견에 전체 27.4%가 ‘동의 않음’이라고 답해 불신이 높

가장 신뢰하는 종교



조계종인지도 및 신뢰도



‘조계종 잘 안다’ 33% 불교 신뢰보다 ‘불신’ 인식 강해
인상평가 100점 만점 ‘58점’

종교 신뢰 불교·가톨릭 비슷
국민 절반 “종교, 갈등 유발”
종교인 과세 87% 찬성 의견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자정과 개혁에 적극적’이라는 의견에는 26.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불교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산문화재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 등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중요 정책들이 많았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불교 31.6%와 가톨릭 31.7%가 신교는 21.6%로 크게 못 미쳤다. 연령별로는 불교는 20대 이하에서 높았고, 천주교는 50~6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게 되거나 바꾸게 된다면 선택할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가톨릭이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국민의 25%가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답했고, 불교 17.1% 개신교 10% 순이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4년에는 같은 질문에 불교가 35.6%로 가장 높았으나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어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35.9%

등 50.5%가 동의했다. 또 68.0%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응답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 통합의 성소가 아닌 갈등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 87.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 반대율이 12.8%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종교에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번 여론 조사가 한국불교의 위기 담론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조계종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이라는 점은 20년 전 종단 개혁에 무의미했음을 시사한다”면서 “한국불교가 자신의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정치·행정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4~14일동안 이뤄졌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1%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사·감사 제적원 제출 선학원 설립정신 위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8일 선학원 관련 示衆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선학원 임원진의 제적원 제출은 선학원 설립정신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종단 행보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정 진제 스님이 8일 내린 시중(示衆)을 발표했다.

진제 스님은 시중을 통해 “조계종과 선학원은 그 뿌리가 하나”라며 “선학원은 선사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이 될 수 있었다. 은혜를 입은 후학으로서 먹물 옷을 입고 조계종단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학원 임원진의 제적원 제출은 선사 스님들의 선학원 설립정신을 거스리는 행위”라며 “선사 스님들의 고귀한 헌신을 왜곡하고 대중의 공의를 가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곧 파습적 행위로 엄정한 책임이 함께 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또한 진제 스님은 선학원 이사 스님들이 종단과 뜻을 함께 할 것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종단은 선학원 구성원이 한국불교와 종도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헌 중법에 따라 제반 문제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선학원 모든 임원진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잘 회향해 종단과 더불어 뜻과 행보를 같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만 스님은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선학원 문제를 중헌 중법대로 풀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만 스님은 “7월 2일 인사차 진제 스님을 예방했고, 선학원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시중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후 원장 스님이 다시 내려가서 시중을 직접 받아왔다”면서 “향후 시중에 도 잘 나타나 있지만 현재 중헌 중법에 따라 선학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2면)

사립박물관에 도난문화재 400점 확인

지난 5월 사채 못값아 경매 출품 ‘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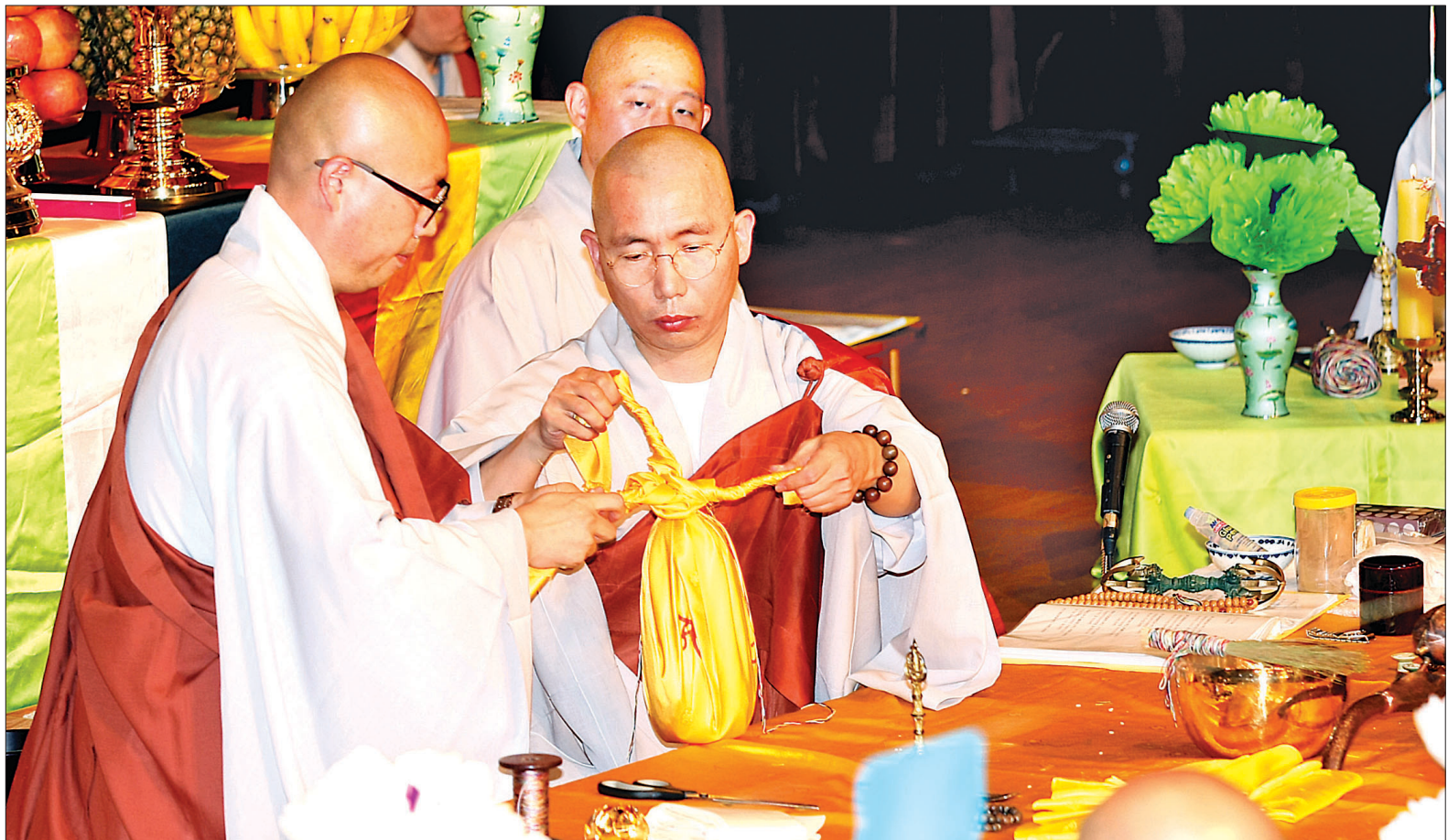
지난 5월 서울 인사동의 경매장에 나온 도난 불교문화재 5점. 이 불교문화재를 경매에 내놓은 사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도난문화재가 400점 넘게 보관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사찰에서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마이아트옥션에 도난문화재를 출품한 서울H박물관을 추조사 결과 이 박물관 개인수장고에서 추가적으로 도난문화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난 경매에 출품된 도난문화재는 박물관장이 미술품 수집을 위해 사채를 빌리며 담보로 잡힌 것들로 사채를 못 갚게 되자, 사채업자가 내놓은 것들로 당시 경매에는 총 18점이 출품됐다. 하지만 5월 압수된 4점 포함, 총 5점이 도난품으로 조사됐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립박물관장 A(74)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며 박물관장의 수장고에 이와 비슷한 도난문화재로 추정되는 문화재 400점이 발견돼 문화재청과 감시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1001호 INDEX

기획 주어사지 원형복원 발원 현장	8	종합 2014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조계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2·3
불교로 읽는 고전 헨리,D 소로의 〈월든〉			24



불복장보존회 스님들이 7월 9일 조계종총무원 지하 공연장에서 직접 제작한 오보병을 후령통에 넣은 후 이를 불복장에 안치하는 의식을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관 기자

불복장 봉안 의식 일반 대중에 공개

보존회, 9일 총무원 공연장서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회장 무관, 조계종 법계위원)는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통 불복장 의식 및 점안의식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은 보존회장 무관 스님, 성오 스님, 도성 스님, 경암 스님이 집전했다. 의식은 행사 전 도량결계 및 오방단 설단이 진행됐으며 보존회원 경암 스님의 다라니 인경을 시작으로 정중제회, 생만삼분, 후령통 조성, 알가공양 등의 복장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법당 및 성상결계, 점안의식, 점멸의식 등 점안의식이 진행됐다.

한편, 보존회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월 중으로 불복장, 점안의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부다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부다를 검색하세요.